

전발연 2004-R-0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전라북도 발전방향

2004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이창현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나상균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성기만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강진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동기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보국 • 전북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정영현 • 전북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2000년 1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주요내용이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등 국가균형 3대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에 맞추어 국토계획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게 됨
- 국토종합계획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
-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수립에 따라 전국의 각 시·도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수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성장을 추구함
- 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국가 및 전북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중·장기계획의 추진근거를 확보하며, 아울러 지역간 협력·제휴에 의한 공동사업을 전개하여 지역간 상생발전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결과 요약

1) 계획의 목표

- 전북의 ‘환황해권 신산업 생산·물류중심지’로의 도약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목표를 설정함
 - 환황해권 및 신국토발전축의 중심지역으로 도약
 -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신산업중심지로 발전
 - 멋·맛·소리의 세계화와 지역문화의 창조
 -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 주요 추진전략

- 전북이 보유한 발전잠재력과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여건변화 전망을 종합한 중점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새로운 국토축 형성에 부응하는 신행정수도의 관문화
 - 지역간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지역정보화 추진
 -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전통문화중심도시 및 영상문화산업수도화로 지역자원의 세계화 실현
 - 생활·복지기반의 선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생태·환경보전관리
 -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행정역량 강화
 - 지역간 공생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연계강화내용

II. 정책건의

-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상의 권역설정을 광역행정구역 중심 또는 10대 광역권을 중심으로 성장권역을 구분해야 함
 - 과거 수차례에 걸친 국토계획상의 권역이 일치하지 않아 국토정책의 성과에 대한 검증 어려움 해결 필요
 - 특히 전북의 경우 광역시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대 권역으로 설정시 타 지자체의 성장 구심축을 지원, 보조하는 차 하위 지역으로 전략할 우려가 큼
 - 정책 전개와 성과검토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행정구역 중심 내지 지정 국토계획상 광역권 중심으로 권역설정(기존 광역권 전 국토 면적의 52%, 인구의 46%가 해당되어 국토공간 포괄 범위로도 의미가 충분함)
- 정부의 새만금사업 조치계획을 수용하는 일관된 추진 필요(2006년 방조제 공사 완공, 전북지역 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가장 유리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단계적 개발추진)
- 일관된 국토정책 기조 유지 필요
 - 전주의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육성 및 영상문화산업수도화의 지속적 추진

- 전국 10대 광역권 개발(광역권별 개발방향, 기정계획 23쪽) 수정
 - “복합산업지대 조성과 영상산업의 육성”을 “복합산업지대 조성과 전통문화 중심 도시 및 영상산업의 육성”으로 수정
- 고속교통 정보망의 구축(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철도망 추진, 기정계획 71쪽)
 - 고속철도 정차역 배후지역간의 연계체계 촉진과 전주·군장광역권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단일생활권화 함으로써 도시총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주~익산~군산~새만금~부안~김제연결 순환경전철 노선 건설추진” 추가
-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와 동계스포츠 메카로서의 기반 조성(무주~대구간 고속도로 및 IOC 기준 기반시설 확충)

목 차

제 I 장 현황과 여건변화 전망	23
제1절 지역의 현황 및 특성	23
1. 자연환경	23
2. 인문·사회환경	24
제2절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전망	25
제3절 계획과제의 도출	26
제 II 장 목표 및 추진전략	31
제1절 계획의 목표	31
제2절 주요 추진전략	31
제 III 장 전략별 추진방안	37
제1절 새로운 국토축 형성에 부응하는 신행정수도의 관문화	37
제2절 지역간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지역정보화 추진	42
제3절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48
제4절 전통문화중심도시 및 영상문화산업수도화로 지역자원의 세계화	54
제5절 생활·복지기반의 선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59
제6절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생태·환경보전관리	64
제7절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행정역량 강화	68
제8절 지역간 공생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연계방안	70
제 IV 장 정책적 건의사항	77
별책(요약본)	77

표 목 차

<표 2-1> 전북-충남간 교류협력회의 협력과제	5
----------------------------------	---

그림 목 차

<그림 1-1> 전라북도 지형도	4
<그림 1-2> 전라북도 인구변화추이(1970~2003)	8
<그림 1-3> 새만금방조제	8
<그림 1-4> 군장신항과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	11
<그림 2-1>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14
<그림 3-1> 새만금지구 토지이용계획 전북(안)	15
<그림 3-2> 김제공항 건설개요 및 청사 조감도	16
<그림 3-3> 미래형 혁신도시(예시도)	16
<그림 3-4>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전주국제영화제	20
<그림 3-5> 군산 국제해양관광지 기본계획(안)	26
<그림 3-6> 주체간 유기적 네트워크(예/전통문화산업)	27
<그림 3-7> 전통문화도시 육성(소리문화의 산업화와 지역간 연대)	20
<그림 3-8> 광역상수도 계통도	26
<그림 3-9>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27
<그림 3-10> 풍력발전단지 외국사례(네덜란드)	27

제 1 장

현황과 여건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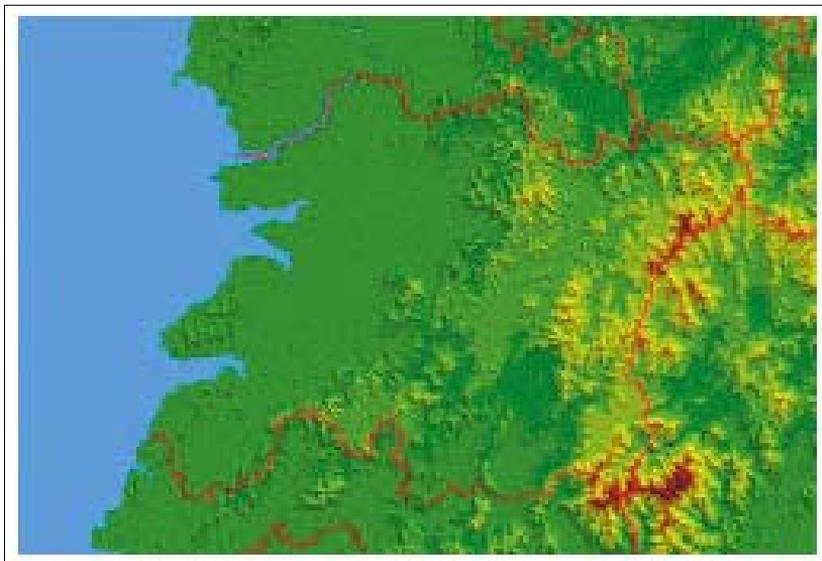
- 제 1 절 지역의 현황 및 특성
- 제 2 절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전망

제 I 장 현황과 여건변화 전망

제1절 지역의 현황 및 특성

1.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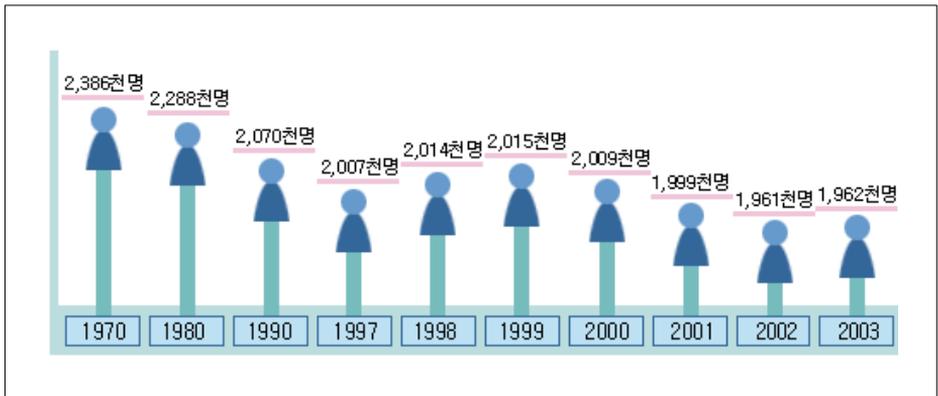
- 전북은 지형적으로 서부지역에는 군산반도, 진봉반도, 변산반도 등을 중심으로 한 연안지역이 199.8km의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
- 중부지역에는 김제평야, 만경평야 등 국내를 대표하는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고, 동부지역에는 소백산맥, 노령산맥 등이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지역 면적의 51%가 표고 100m이하의 평지로 넓은 평야를 보유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해안~평야~산맥으로 이어지는 동고서저의 계단식 지형을 이루고 있다.
- 지형적 영향으로 서부지역은 연간 기온차가 적고 강수량이 적은 반면, 동부산지는 기온차가 크고 강수량도 많은 편이어서 동서지역간 기후차이가 크다.



<그림 1-1> 전라북도 지형도

2. 인문·사회환경

- 행정구역 면적은 총 8,047km²로 남한면적의 8.1%에 해당되며, 6개시 8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북인구는 2002년 현재 1,962천명으로 전국대비 인구점유율이 4.04%로 1965년 전국대비 8.7%의 인구점유율에 비해 크게 낮아진 실정에 있다. 이는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어 성장동력이 취약하고 1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인구의 지속적 유출이 낳은 결과이다.
- 경제활동가능인구비와 활성인구비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있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청·장년층의 인재층이 두텁지 못하고 이에 따라 지역 활력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북의 1인당 GRDP는 9,206천원으로 전국평균 1인당 GRDP의 81.5%,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4.6%의 절반 이하인 26.3%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 사회간접자본으로는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군장신항, 국가산업단지 등과 대규모 간척사업에 의한 풍부한 토지자원과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1-2> 전라북도 인구변화추이(1970~2003)

- 또한 마한, 백제·후백제, 조선조문화의 발원지로 찬란한 전통문화예술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며, 다양한 문화·영상관련 국제행사와 전국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맛과 멋, 소리, 예향의 도시이미지 및 청정 환경 보존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2절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전망

-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수도권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이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어서 신행정수도와 접근성이 양호한 전북은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역할강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와 광활한 토지자원을 제공할 새만금지구는 환황해권 형성의 교두보이자 신산업중심지, 신행정수도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5도2촌』 생활패턴이 확산될 전망이고 고속철도시대에 부응하여 편리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국토축형성이 예상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깨끗한



<그림 1-3> 새만금 방조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세계적 추세인 문화, 관광·레저, 의료·건강, 지식산업분야가 육성될 경우 전북의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 동북아 지역내의 국가간 교류협력의 심화와 함께 지리적 중심지로서 한반도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며, 중국과의 협력강화에 따른 환황해권의 지역간 산업분업의 심화는 군산을 비롯한 전북 서해안지역의 성장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제3절 계획과제의 도출

- 환황해권 및 신국토발전축의 중심지역으로 전북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전주·군장광역권 개발, 새만금지구의 복합적 토지이용, 동계올림픽 개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대규모 현안과제가 우선 실행되게 한다.
- 저렴한 산업용지의 공급여건과 풍부한 개발 잠재력,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등에 맞추어 기업 입지환경 개선 등을 토대로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의 육성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그림 1-4> 군산신항과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

- 기본적으로 도로·공항·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며, 신행정수도 건설 등과 연계한 새로운 국토공간구조 형성 전략에 따라 기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경쟁력 있는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전북도내에서도 서부 지역과 동부지역간의 지역격차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지역화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동시에 국토의 동서지역간 통합성 제고를 위해 동서지역간 연계 교통망 구축을 추진한다.
- 아울러 계획적 토지이용과 지속가능한 생태 및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 및 교육·복지 기반조성 등 전북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전개한다.

제 2 장

목표 및 추진전략

- 제 1 절 계획의 목표
- 제 2 절 주요 추진전략

제Ⅱ장 목표 및 추진전략

제1절 계획의 목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고속철도 개통, 중국의 성장 등 국내·외의 새로운 여건 변화가 전북발전의 기회요인이 되도록 전북발전의 내생적 역량을 강화하여 『환황해권 신산업 생산·물류중심지』로의 도약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목표를 설정한다.

- 환황해권 및 신국토발전축의 중심지역으로 도약
-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신산업중심지로 발전
- 멋·맛·소리의 세계화와 지역문화의 창조
-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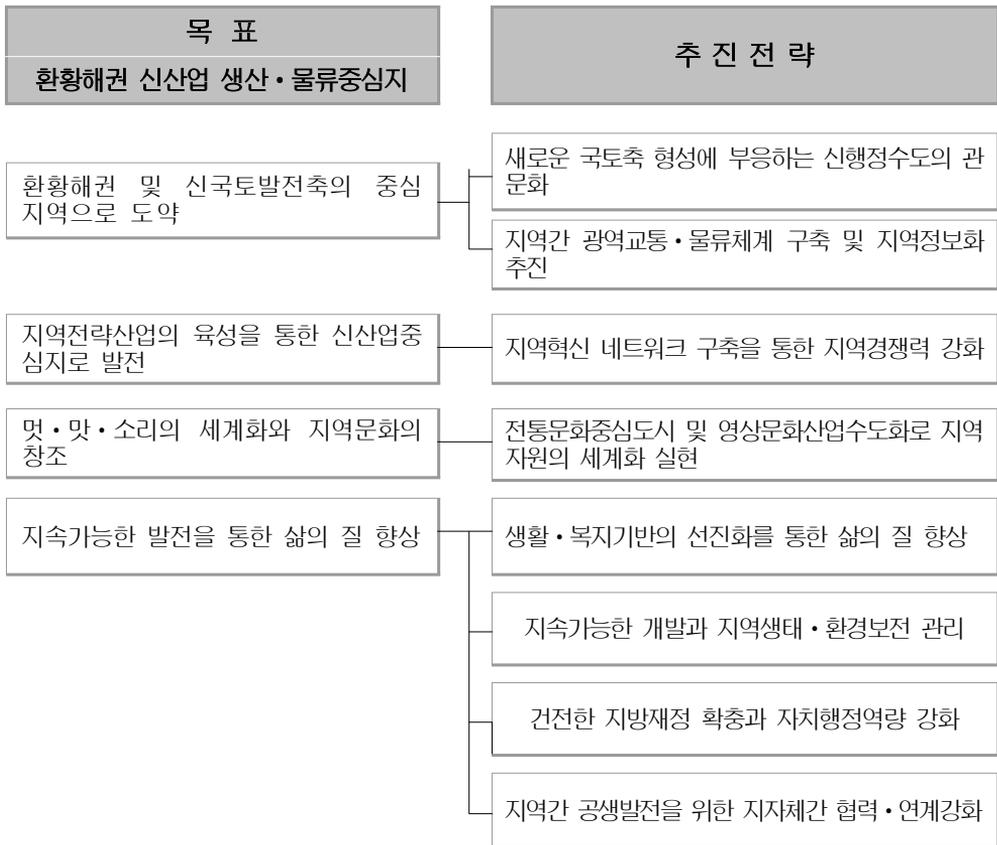
제2절 주요 추진전략

국토계획의 기초에 부합되면서 전북이 보유한 발전잠재력과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여건변화 전망을 종합하여 전북이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국토축 형성에 부응하는 신행정수도의 관문화
- 지역간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지역정보화 추진
-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전통문화중심도시 및 영상문화산업수도화로 지역자원의 세계화 실현
- 생활·복지기반의 선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생태·환경보전관리
-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행정역량 강화
- 지역간 공생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연계 강화

이와 같은 주요전략의 추진을 통해 국토의 환황해권 관문기능을 수행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신 거점(New Asian Gate)화를 실현하고,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성장여건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한 광역적 차원의 교통망 및 지역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체계와 연계한 환경보전 및 관리체계의 구축과 주거복지 욕구증대에 부응하는 생활복지 기반이 다져지도록 하며, 건전한 지방재정과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내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



<그림 2-1>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동시에 지자체간 협력의 기본바탕 아래 상호발전을 위해 공동추진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전북 및 인접 광역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실현한다.

<표 2-1> 전북-충남간 교류협력회의 협력과제

협 력 과 제	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합 계	20	10	-	4	6
I. 공동방문단 구성 재건의	2	2			
1) 충남전북간 국도 확포장사업 공동대응		■			
2) 국도 77호 「군장대교」 건설		■			
II. 지속점검 추진	9	6	-	3	
1)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활성화		■			
2)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공동 대응		■			
3) 「공동조업구역」 조정 및 어업질서 확립		■			
4)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 조기확정		■			
5) 「금강하구둑」 쓰레기 공동대처		■			
6.) 「금강수계규제지역 수계관리기금」 지원 확대		■			
7) 꽃게 금어기 규정 개정				■	
8) 남이 건천리 ~ 운주 산북리간 도로 확포장				■	
9) 군산 ~ 서천간 국도 4호선 도로연결				■	
III. 정상추진	3	2	-	1	
1) 「대둔산 도립공원」 협력관리		■			
2) 배티재 주변 공동개발		■			
3) 야생조수 보호 공동대처				■	
IV. 신규사항	6				6
1)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공조체제 구축					■
2.) 군산철새축제 「충남관광홍보관」 설치운영					■
3) 부여지역 「문화예술축제」 참가협조					■
4)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 공동노력					■
5) 탐정호 유입쓰레기 저감방안 공동추진					■
6) 「2004군산자동차부품엑스포」 참가 협조					■

제 3 장

전략별 추진방안

- 제 1 절 새로운 국토축 형성에 부응하는 신행정수도의 관문화
- 제 2 절 지역간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지역정보화 추진
- 제 3 절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제 4 절 전통문화중심도시 및 영상문화산업수도화로 지역자원의 세계화실현
- 제 5 절 생활·복지기반의 선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제 6 절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생태·환경보전 관리
- 제 7 절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행정역량 강화
- 제 8 절 지역간 공생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연계강화

제Ⅲ장 전략별 추진방안

제1절 새로운 국토축 형성에 부응하는 신행정수도의 관문화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도시체계와 지역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토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는다. 수도권과 지방의 기능분담과 신 국토축 형성에 전북의 참여와 성장효과 발휘가 극대화 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북의 중·장기적인 대규모 현안 과제가 계획기간내에 착수 및 완료됨으로써 파급효과 발생을 통해 안정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신행정수도건설, 중앙 공공기관 지방이전, 통합형 국토축, 도농통합적 발전, 고속철도 개통,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지역특성화 발전방안과 전북의 현안과제를 계획내용으로 담는다.

그 기본방향은 ① ‘전주·군장광역권’의 환황해권 생산·물류 거점 기지화 ② ‘신산업 생산중심’의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③ 새만금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내부개발 추진 ④ 군장신항 확충과 새만금신항 개발 및 김제공항 건설 추진 ⑤ 혁신도시 육성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⑥ 환황해권과 연계한 동부산악권의 휴양·레저 거점화로 설정한다.

1. ‘전주·군장광역권’의 환황해권 생산·물류 거점 기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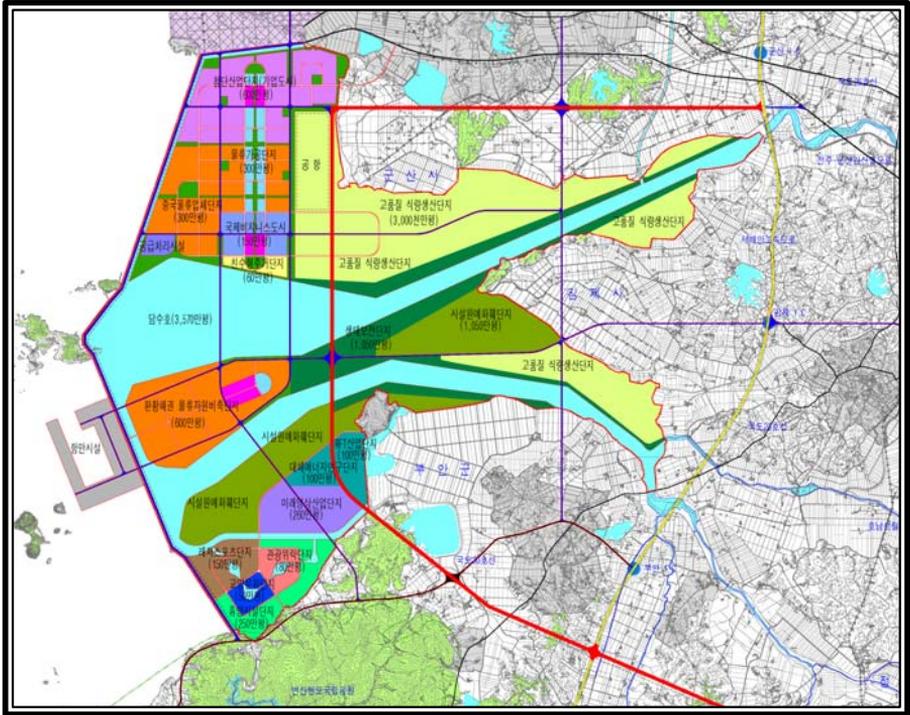
- 전주·군장광역권은 전북 발전의 모든 요소가 어우러지는 핵심권역으로써 21세기환황해권 생산·물류의 거점이자 동북아 교류의 거점권역으로서 기능을 보유하도록 한다.
- 전주·군장광역권은 전주~익산~군산 연담대도시권과 새만금, 정읍, 부안, 완주도시권까지를 아우르는 통합된 대도시권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한다.

2. '신산업 생산중심'의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 국토 서남부에 위치한 군산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중부권의 대중국·아시아 교류의 관문으로서 광활한 산업용지, 도로·철도·항만·공항·용수 등 풍부한 산업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신산업 생산중심'의 경제자유구역 모델 육성의 최적지이다.
- 중국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기능분담을 가져올 핵심거점을 환황해권 중심인 군산지역에 마련하여 국제분업의 이익을 향유하며, 중국 연안지역 집적 형성에 대응한다.
-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단기적(제1단계)으로 생산중심의 물류, 관광·위락·배후기능을 담당하는 소규모 국제산업도시를 육성하고, 장기적(제2단계)으로는 생산·물류·국제업무·관광·위락기능을 완비한 국제경제 자유도시를 건설한다.

3. 새만금지이용계획 수립과 내부개발 추진

- 새만금지구는 지리적으로 전주·군장광역권과 연계된 환황해권의 신산업 거점구축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이며, 대 중국 및 동아시아를 겨냥한 산업벨트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주요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매력적인 조건을 갖춘 친환경 간척지이다.
- 따라서 정부의 새만금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방조제공사는 2006년에 완공하고, 향후 토지이용계획은 국가와 지역에 이익이 되는 농업·산업·관광·물류·생태공간 및 미래 토지수요에 대비한 유보지 개념의 토지를 확보하는 등 내부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토록 하며, 토지이용의 다양성과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단계적 내부 개발을 추진하고 일부 완료되도록 한다.



<그림 3-1> 새만금지구 토지이용계획 전북(안)

- 새만금지구는 농업생산정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복합적 토지수요 발생에도 원활히 대처하도록 개발 추진 주체, 개발방식, 자원 조달, 세제지원, 행정구역 및 소유권 등 다수의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문을 종합적으로 담아 의제 처리할 수 있는 ‘새만금종합개발에관한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4. 군장신항 확충과 새만금신항 개발 및 김제공항 건설추진

- 군장신항과 새만금신항은 환황해권 교류거점으로서 역할증대가 기대됨에 따라 대중국 교역거점이자 동북아 교역 허브항으로 개발하여 수출·입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 군장신항은 항만기능 뿐만 아니라 군산자유무역지역 및 군산 경제자유구역(제1단계) 조성에 따라 복합적인 물류 및 국제교류기능을 담당토록 확충한다.
-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내부개발과 군산 경제자유구역(제2단계) 조성에 따라 증대될 산업용지 수요와 틈새 물류집하에 대처하고, 특히 배후단지의 부족, 높은 분양가 및 임대료 등 우리나라 항만 배후단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광활한 새만금 내부토지가 상당부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어 새만금신항 개발을 추진한다.
- 전북은 수도권에서 3시간대 위치한 광역지자체 가운데 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이다. 향후 증대되는 항공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단기적으로는 근거리 항공 노선 위주의 항공체계를 김제공항이 담당토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환황해권시대 대 중국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도록 국제항공노선을 취항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반을 구축한다.



- 위치 : 김제시 백산면 및 공덕면 일원
- 규모 : 부지 427천평, 활주로 1,800m×45m×1분
- 사업비 : 1,219억원(국비)

<그림 3-2> 김제공항 건설개요 및 청사 조감도

5. 혁신도시 육성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 전북의 지역산업을 고도화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도록 신행정수도 최종입지로부터 1시간이내권인 전북지역에 2개 이상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육성한다.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 인접 지자체인 전북지역이 제반 배후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전북지역의 역기능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림 3-3> 미래형 혁신도시(에시도)

- 농업분야가 특화되어 있는 충남~전남지역간의 접이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관련 종사자간의 효율적인 업무 연계성과 추가적인 교통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농도의 전통을 살린 농업기능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육성한다.
- 아울러 산업기능과 행정기능간의 클러스터 목적에 부합되도록 전북 전략산업인 방사선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전력산업기능과 에너지관리기능, 전략산업과 영상문화산업수도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에 필수적인 문화학술기능, 향후 대규모 가용 토지자원을 제공하게 될 새만금 지구의 내부개발 주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주택산업기능과 건설기능 관련기관을 전북에 유치한다.

6. 환황해권과 연계한 동부산악권의 휴양·레저 거점화

- 신행정수도 충청권(연기·공주) 건설에 따라 새롭게 창출될 행정수도 상주 인구 및 국내·외 방문객에 의한 관광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테마형 특화 관광지역을 동부산악권(무주·진안·장수·남원·순창)에 조성한다.
- 동부산악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청정 산악경관자원을 활용한 생태·휴양 관광자원과 스키(수상스키 포함), 승마, 골프 등 레포츠 체험 관광자원, 전통문화체험 관광자원을 집중 육성하여 휴양·레저 거점화를 추진한다.
- 2010년 완공예정인 고속철도 전북 정차에 대비하여 일체형의 복합 환승 센터를 건립하고, 역세권개발을 통해 구도심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도록 한다. 아울러 전북도내 지역간 교통연계 체계와 전북~신행정수도간 연계망을 구축하여 서부권의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서해안 해양체험관광 자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한다.
- 지역 고유의 특성을 담고 있는 문화관광자원 특성화, 국제수준의 상징적인 테마파크 조성, 실버 및 복합휴양 레저단지 개발 등을 위해 외국인 문화특구, 보석관광특구, 한방산업특구, 레포츠휴양특구, 승마레저특구, 스포밸리스포츠특구, 장수개발특구, 해양체험관광특구 등을 지정하여 육성한다.

제2절 지역간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지역정보화 추진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의 근간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국토 남북축 연계성 강화와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신행정수도의 관문 기능을 수행할 서해안의 발전을 내륙으로 전달하는 의미의 동서축 연결에 있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배후도시권의 연계체계 구축과 함께 생산과 물류 거점의 클러스터를 위한 거점 유통단지 개발에도 있다. 아울러 기술변화와

정보화는 신산업의 창출과 함께 새로운 산업 집적지를 탄생시키고 국내의 경제공간을 재편할 것이므로 지역정보화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역간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①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② 지역간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③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 및 격년제 실시 ④ 국가 기간 물류거점 및 권역별 거점유통단지 조성 ⑤ 산업·기술·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설정한다.

1.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고 공공기관 전북이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부처와 기관간 업무협조의 원활성을 기하여 사회적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조기에 확충한다.
- 신행정수도와 새만금지구, 신행정수와 전북도내 주요 도시간을 연계하는 격자형의 3×3(남북 3축, 동서 3축) 고속간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 가운데 신행정 수도와 연계한 광역교통체계는 남북축 3개 노선이 해당 된다. 남북축은 김제공항~익산~논산JCT~천안·논산간 고속도로~신행정 수도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군산(군장대교)~군장JCT~공주·서천간 고속도로~신행정수도간 고속화도로 건설, 전주~논산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활성화를 도모한다.
- 서울~신행정수도~익산~목포간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의 '천안'조기확정과 고속철도 수혜 지역 확대 및 호남선 고속열차 운행효과 극대화를 위해 익산~순천간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한다.

2. 지역간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 해양·대륙 지향적인 국토발전과 그 효과를 내륙으로 확산시키고 동서해안을 연결하고자 하는 국토개발의 추진방향에 따라 예상되는 국토의 동서간 교류 확대에 부응하고 낙후 지역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연계도로망을 확충한다.
- 동서 3축의 고속간선망은 새만금~서해안고속도로-김제공항(지방도 716호 확장)~전주간 고속도로, 군산~익산~호남고속도로(익산JCT)~장수간 고속도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국토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동서간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 통합에 기여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공사를 계획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공한다.
- 군장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대량화물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익산(오산)~군산(대야)간 군산선 복선전철화를 추진하고, 군산신항과 산업단지 및 내륙과의 철도연결을 위한 대야~군장국가산업단지간 인입철도를 건설하여 물류비 절감 등 대중국, 동북아권 교역항으로 기능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동서 화합을 꾀하는 축이자 서해안의 발전을 내륙으로 전달하는 축으로서 새만금~군산~익산~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도록 하여 새만금, 동서지역간 물류수송망이 확충되도록 한다. 또한 중·남북 내륙 지역의 물류수송망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무주~영동간 내륙산악철도를 건설한다.
- 주요 도시지역간 원활한 대중교통수송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장기적으로 전주시 노면경전철 건설, 고속철도 정차역 배후지역간의 연계체계 촉진과 전주·군장광역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단일생활권화 함으로써 도시총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주~익산~군산~새만금간 복선전철망 건설을 추진한다.

- 신행정수도, 공공기관 전북이전, 기업신도시, 산업단지 건설, 새만금사업에 따른 주변 지역과 연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일반국도 4차선화와 국가간선 도로교통시설과 연계하여 생활권내 통행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간선 도로망을 확충한다.
-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레저생활 증가에 대비하고, 관광기반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지리산경비행장을 건설한다.
- 새만금지역·변산반도 등의 서부해양관광권, 중부전통문화권, 동부산악생태관광권을 연결하는 전북순환고속화도로(belt way)를 구축하여 전북 지역 관광권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3.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 및 격년제 실시

- 고품질의 제품을 최단시간내에 저렴한 물류비를 소요하여 지구촌 시장에 전달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해상운송이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8%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고 상황에서 물류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시점에 국내·외 기업의 자본유치가 가능한 세계물류박람회의 개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환황해권 신산업 생산·물류중심지』 실현방안으로 군산신항과 새만금지역을 동북아의 물류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해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를 개최하며 격년제로 정례화하여 추진하되, 범 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수 배에 달하는 투자대비 산업 파급효과를 발휘토록 한다.
- 승인된 세계물류박람회 추진단을 중심으로 박람회 최적지인 군산자유무역지역에서 세계 굴지의 다국적 물류기업들이 참가할 세계물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격년제 실시를 통해 동북아 물류 로드맵에 새만금신항이 부산·광양과 더불어 포함되는 계기가 되게 한다.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물류시대에 국내 항만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새만금지구를 배후에 둔 동북아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이 되게 한다.

4. 국가기간 물류거점 및 권역별 거점유통단지 조성

- 전북의 위상제고와 향후 증가할 국내·외간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물류단지를 적극 조성한다. 특히 고속도로·항만·공항 및 전주 군산권의 산업단지와 새만금지역을 연계하는 대규모 물류단지 및 권역별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생산·물류거점 클러스터화를 추진한다.
- 국내 지역간 물류수요에 대비하고 전북지역을 포괄하는 대규모 물류단지를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호남선철도, 전라선철도 등 간선교통망이 교차하는 지역인 익산 근교에 물류관리정보시스템과 트럭터미널을 갖춘 전북거점 종합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중국 및 동북아 교역증대에 대비하여 군산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지구를 연계하는 대규모 물류단지를 새만금 내부 토지 또는 인접 군산지역에 조성한다.
- 아울러 JCT부근 등 지역간 연계성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4대 권역(전주,군산,정읍,남원) 물류단지를 적극 추진하며, 아울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주변에 장수유통단지를, 김제공항 주변에 김제유통단지를 조성한다.
- 물류단지는 정부지원시책 미흡으로 사업시행에 대한 민간개발이 저조한 실정임으로 물동량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점진적 시설확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임대 수요를 감안하여 초기에 과다한 시설투자로 인하여 적자 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규모 물류단지 및 권역별 물류단지를 중·장기적 차원에서 단계별로 확충한다.

5. 산업·기술·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

- 종합적인 국토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정부차원의 국토정보화 사업에 맞추어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확충,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정보통신 기반구축,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단지의 건설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정보화 기반을 구축한다.
- 질적 정보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정보인프라의 확충과 지역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 활용 여건조성, 그리고 전자지방정부 기반완성 및 대도민 서비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첨단디지털정보센터(HiDC) 구축 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정보화 추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공자 재형(Ubiquitous) 네트워크 기반구축을 추진한다.
- e-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서비스와 e-비즈니스 컨설팅의 확충을 위한 e-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인프라의 구축이 실제 상업적 효용성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 각 지역특화산업의 관리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첨단정보통신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각종 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의 정보망을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산업간 정보교류 활성화 등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산업 정보망구축사업으로 제조업 생산 및 물류지원 정보망을 수립하여 물류유통단지간의 정보교류, 생산자와 유통업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첨단정보통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전자정보통신분야, 첨단제품생산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 정보화를 위한 마을별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영농 및 축산 수산정보망 구축을 통해 첨단영농관리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한다.

- 자치단체간 정보화 격차해소 및 정보화 추진인력의 확충방안을 모색한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을 통한 지역 특산품 판매로 주민소득에 기여토록 한다. 또한 생활의 필수로 자리잡고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도민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과 정보화추진인력의 확충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제3절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의 경쟁력 제고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문 가운데 지역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조화롭게 성장될 때 보장된다. 그러나 산업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전북이 매력있는 산업 환경과 지역성장에 필수적인 혁신역량을 보유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북은 21세기 신산업화 과정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선정·육성하고 전북에 적합한 발전모형을 구축하여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①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지역발전모형 구축 ② 전략산업과 지역고유의 전통산업 활성화 ③ 전주~익산~군산~정읍을 잇는 T자형 혁신클러스터 조성 ④ 안전한 식품공급체계의 구축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설정한다.

1.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지역발전모형 구축

- 전북지역의 산업집적 실태와 혁신역량을 고려하고 성장유망산업 중심의 전북 4대 전략산업과 지연산업을 선정·육성하며, 산업생산체제의 고도화를 위해 혁신 주체의 역할강화는 물론 과학기술체제와 기업지원체제가 효율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혁신주체간의 직·간접적 협력을 강화시킨다.

-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산·학·연·관 및 시민단체, 언론 등 각 혁신주체 내, 그리고 혁신주체들 간 상호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신뢰와 협력 문화를 조성한다.
- 과학기술체계로는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한 후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는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전략산업군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여 지역 산업발달의 선도 역할을 다 하도록 전략산업중심의 산업집적지와 지연산업 중심의 산업 집적지를 구축한다.
- 기업지원체계는 전략산업 생산체계의 발전구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략산업의 세부 육성분야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업서비스분야, 중소기업군의 육성에 요구되는 기업서비스분야,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 서비스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북의 여건상 민간기업보다는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기술개발지원, 정보화 지원기능, 창업보육기능, 기능인력 양성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여 이들 시설을 집적시킴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 전략산업과 지역 고유의 전통산업 활성화

- 전북의 4대 핵심전략산업으로 자동차부품·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을 선정하며, 지연산업으로 귀금속·보석산업, 니트산업, 옷칠산업, 장류산업, 유가공산업, 복분자산업, 젓갈산업, 한우산업, 파프리카산업, 허브산업을 각각 육성한다.
-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과 연계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생산기반 확충 및 고도화 기반을 구축하며, 산업입지 및 생산인프라 구축을 통한 집적화 단지 조성과 지원센터를 건립(군산 자동차부품집적화단지 기반 자동차부품산업테크노 밸리 조성, 전주 첨단기계산업단지 기반 기계산업테

크노벨리 조성)하고, 생산연관 산업(금형, 주물, 열처리 등)의 유치 및 집적화, 산업용재 종합유통단지 조성, 중견 부품기업체 유치 및 서해안 자동차(부품) 생산 거점화를 추진한다.

- 생물산업 국내 중심지 조성을 위해 전북고유의 식품, 생물, 한방 등 3대 산업과 발효산업집중육성, 건강·기능성식품 상용화, 전통과학식품상품화, 발효엑스포개최, 자립형아파트 공장설립, 대사물질연구기반 구축, 임상실험센터 설립, 한의약자원 생산기반 구축, 한방문화의료산업단지, 한방과학산업 정보화사업 등 10대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 방사선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정읍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생명·자원·환경·산업기술산업 육성과 익산 차세대방사선의료영상연구를 토대로 첨단방사선의료영상기기산업, 양성자가속기 활용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면서 이의 상용화를 통해 국내생산 및 수출거점으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방사선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은 전북의 특성이 맛, 멋, 예향의 고장임을 고려하여 맞춤형 체험관광상품개발,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육성, 체험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전통문화예술진흥사업, 통합네트워크구축사업 및 연구지원사업,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 차세대 신성장 신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기술산업과 관련하여 최근 전주에 유치된 나노기술센터를 기반으로 국가나노기술의 허브로 육성한다.
- 전북의 지연산업은 지역에 연고를 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향후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한다.
- 지연산업별 추진전략은 귀금속·보석산업의 경우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보석산업의 국제화, 산업간 네트워크 구축에, 니트산업은 기술

개발에, 옷칠산업은 전통공예품 개발에 요구되는 인프라의 구축에, 장류 산업은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에 중점을 둔다. 유가공 산업의 경우 발효식품을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벤처단지의 설립을 추진하고 지원하며, 복분자산업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테마관광지화, 생산재배단지 지원, 특화주 및 기능성식품으로 성장시킨다. 젓갈산업은 미래 수산형 발효식품산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술개발 및 젓갈의 브랜드화와 젓갈쇼핑 단지를 설치하며, 한우산업은 고부가가치 및 안전축산물로 집중 육성하고 연구지원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파프리카산업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고소득 작물로 육성하여 수출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며, 허브산업은 허브자원 개발 및 허브단지조성을 통해 육성한다.

3. 전주~익산~군산~김제~정읍을 잇는 T자형 혁신클러스터 조성

- 전주~익산~군산을 주축으로 하고 익산~김제~정읍을 보조축으로 하는 T자형 전략 산업벨트를 구축하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전주~봉동~삼례를 주 집적지로 하고 군산, 정읍을 보조 집적지로 하는 연구개발(R&D) 집적지를 구축한다.
- T자형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전주기계테크노권은 고부가 기계부품생산·특화기계 산업단지·첨단 메카노클러스터, 익산테크노권은 자동차 및 기계부품생산·고부가 귀금속보석가공, 군산자동차테크노권은 완성차 및 부품생산·자동차집적화단지·첨단오토클러스터, 정읍·김제테크노권은 일반기계 및 농기계·자동차 및 기계 부품생산이 해당되며, 장기적으로 새만금지구 군산 행정구역내에 새만금테크노권을 형성시켜 고기능 신소재생산·항공우주산업·차세대부품·물류산업을 선정하여 육성·발전시킨다.
- 전북도내 기초지자체간에 협력하여 연구개발 집적지와 산업 집적지 주변에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 문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기업, 연구소,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아울러 차별화된 집적화 추진을 위해서는 대기업(hub)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spoke)가 상호 수평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지역 토착형 클러스터 모델화를 추진하고, 자동차부품 및 기계 산업의 동반육성을 통한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등 연계 발전을 도모한다.

- 전북과 광주·전남간 부품산업의 연계육성을 추진하여 권역내 자체 부품 조달체제를 구축하며, 호남권, 울산·경남권, 충청권과 연계시켜 상호보완 및 개방형 광역 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한다.
- 기업지원 전략으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의 원스톱서비스체제 구축으로 기업 활동의 수월성제고 전략을 추진하고, 집적지내 스타 기업체의 발굴 및 집중 지원으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센터(RDC), 디자인혁신센터(DIC)를 집적화단지내 구성요소화하여 연계 육성함으로써 전략산업의 디자인혁신을 지원한다.
- 전문성 차별화 전략으로는 완성차의 환경친화성, 안전성, 편리성 및 전자화, 경량화 등 급변하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 동향에 부응하는 자동차일렉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인포트로닉스산업의 중점 육성과 고부가가치의 초고속화, 소형화 및 지능화 기계산업을 육성한다.

4. 안전한 식품공급체계의 구축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도·농간 전략산업과 지연산업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북 농촌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지연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첨단순환농업을 육성시켜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클러스터와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 전북은 전통적인 농도로서 양질의 광활한 농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적정규모의 농지확보 및 우량농지의 유지를 가능케 하는 종합적인 농지관리방안을 모색한다.

- 전북은 전국 쌀 생산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여건도 타 지역보다 월등히 양호하여 전통적인 쌀생산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세계 쌀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쌀 문화를 보호·계승한다.
- 친환경 농·어업, 수자원, 깨끗한 자연환경과 같이 전북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분야에 첨단과학기술과 경영 마인드를 접목하여 친환경적인 식품공급체계가 구축되도록 농촌경제기반의 다원화를 추진한다. 농업위주의 개발전략과 함께 자연경관, 역사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농원, 농촌휴양지 등 잠재력 있는 지역경제 기능을 활성화하며, 첨단농산물 산업단지, 지역특화식품가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수출지향의 특화된 농업기반을 구축한다.
- 안전한 식품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 및 품질관리를 시행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며, 첨단과학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더불어 생산자, 유통관리자, 판매자와 연구소, 대학,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업무 연계하는 농산어촌형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 전북내 권역간 특화 연계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권역별 여건에 적정한 육성전략을 단기간에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3개 권역(전주·정읍·군산권의 생물화학산업, 익산·전주·진안·장수·무주권의 한방산업 및 생물자원산업, 군산·김제·부안·고창·정읍·순창·임실의 바이오 식품산업)이 상호 조화하는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 생물산업의 국내 중심지 조성을 위해 대사물질 연구 및 교육시스템, 바이오 제품 마케팅 인프라, 과학지식경영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주·군산·임실·고창지역에 바이오파크(생명공학연구단지)를 조성하여 바이오식품 산업을 육성한다.
- 건강기능식품 상용화 시스템, 발효 및 전통식품 세계화 사업, 식품컴비나트를 구축하고, 한방산업을 위한 한의약자원 생산기반 및 한방의료실버

산업단지 조성, 청정생명농업 및 유기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그리고 약초 및 식품 원료 청정재배단지 조성,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화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 첨단영농특화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화훼류의 생명공학 실용화 기술 개발, 약용작물 유효성분 탐색 및 가공기술 개발, 복분자·장류·치즈 등 발효식품 개발산업 등을 육성한다.

제4절 전통문화중심도시 및 영상문화산업수도화로 지역자원의 세계화실현

‘예향의 도시’다운 찬란한 전통문화예술 자원과 다양한 영상문화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청정환경 보존지역으로서의 전북은 지역 고유자원의 세계화에 부합하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잠재력에 따라 전주를 영상문화산업수도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화 정책과 관련된 특화 개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호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예술 등 역사문화 자원의 장점을 살려 전주권 및 전북을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지정·육성하고 아울러 실질적인 영상문화산업의 집적지로 육성한다.

전통문화중심도시 및 영상문화산업수도로 지역자원의 세계화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은 ① 영상문화산업수도화를 통한 영상문화산업 메카로 도약 ② 『5도 2촌』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 ③ 전주권의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 및 육성으로 설정하여 지역 고유자원을 계승·발전한다.

1. 영상문화산업수도화를 통한 영상문화산업 메카로 도약

- 1994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영상산업의 최적지로 전주를 지목하여 문화영상도시로서 육성토록 한 바 있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전주를 영상문화산업수도로 발전방향을 정한 바 있다. 따라서 역사·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영상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명실상부한 영상문화산업 수도화 정책을 추진한다.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자원 등을 토대로 맛, 멋, 소리를 통한 지역의 매력과 개성을 창출하며, 문화 향기가 높은 도시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문화행사의 발굴·계승·발전을 통해 세계화함으로써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제고한다.
- 전북의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유산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판소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백제문화와 지식묘, 조선조문화, 전라감영 등의 역사문화를 전승·정비·복원·조성하여 세계적 문화·관광산업으로 승화시킨다.



<그림 3-4>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전주국제영화제

- 전북은 1시간 이내의 최단 동선에서 역사·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시대별 (1900년대 이전-부안 영상테마파크·남원 춘향테마파크, 1900년 이후의 일제 식민지 역사 및 격동기-임실·남원·고창 등 산악지대, 1970년대 이후 현대-무주·진안·장수 등)·테마별(영화, 드라마 등)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집적화된 영화촬영 벨트화가 가능하므로, 산업집적지에 필요한 양·질적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상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
- 이와 같은 영상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영상촬영지(부안·남원·임실·장수 등)를 확충하고, 지역 고유의 축제지원, 전통문화자원 복원, 전주컴퓨터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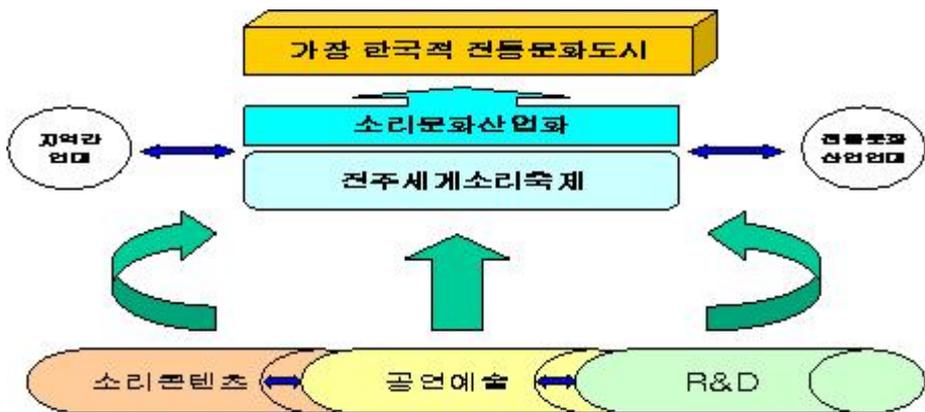
엑스포지원과 종합게임밸리조성 및 모바일콘텐츠 제작센터 건립 및 지역 유·무형의 문화적인 자원을 국제문화행사로 승화시켜 전북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2. 『5도2촌』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

- 전통문화 보존 전승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인프라 육성지원, 전통문화 보존 전승사업,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 통합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 권역별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역사문화관광권(익산, 완주, 전주)은 문화 유적지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자원 및 현대문화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정비·개발한다. 산악휴양관광권(무주, 진안, 장수)은 청정한 동부권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산악, 청정, 생태자원을 주제로 축제, 인삼, 말을 테마로 하는 체험형 관광상품의 개발 및 벨트화를 적극 추진한다. 전통예술 관광권(남원, 임실, 순창)은 풍부한 전통 문화예술 자원을 토대로 남도 전통예술문화 자원의 개발과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문화관광권(군산, 부안, 김제, 고창)은 서해안과 선사문화 유적을 연계한 특색있는 서해안해양관광자원으로 육성하며, 10대 관광거점인 새만금지구는 적극적 개발은 물론 고군산군도와 연계하여 복합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함으로써 동북아 해양관광의 중심지화를 추진한다.
-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과 연계한 동부권 관광벨트화 사업을 광역자치단체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며, 산악자원을 활용한 스포츠기반시설 등을 조성한다.
- 체계적인 맞춤형 체험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인프라를 조성함에 있어 도시 관광자원, 농산촌관광자원, 어촌관광자원 간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한다.

3. 전주권의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 및 육성

- 정보화, 문화콘텐츠화 등 지식산업정책이 급부상하고 있는 세계경제 변화 속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원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천년의 전통생활현장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어 한국의 전통문화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 전주권을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하여 전통생활문화 공간조성, 전통문화 인력양성, 전통문화산업 육성, 전통문화 예술진흥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전통문화를 보호 육성한다.
- 국내유일의 전통생활문화의 공간으로 온전하게 보전된 전주한옥마을조성 사업과 구도심 문화공간조성 및 후백제 테마파크조성사업 등을 전통생활 문화 공간조성사업으로 추진한다.
- 전통문화 인력양성 사업은 전통문화와 전통공예 상품 개발에 요구되는 장인대학 설립 등 전통장인 육성사업과 전통문화 학습관 및 전통문화교 육원 등의 건립을 통해 특성화하고, 공예공방촌 조성 과 한지 세계화사업, 약령시 및 약령공원 조성 등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며 세계문화 유산인 판소리 전수관과 서예박물관 건립,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지원 사업 등을 각각 추진한다.



<그림 3-7> 전통문화도시 육성(소리문화의 산업화와 지역간 연대)

제5절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생태·환경보전관리

전북은 맑고 깨끗한 천혜의 자연환경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삶의 터전이 조성되도록 하며, 모든 정책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조화시키는 환경친화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에너지자원을 활용하여 삶을 질을 제고시키고 천재 또는 인재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생태·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은 ①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 관리체계 구축 ② 수자원의 안전·안정성 확보 ③ 국토생태 통합 네트워크와 연계한 환경보전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④ 방사선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생산의 동북아 중심지로 육성 ⑤ 재해·재난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한다.

1.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 관리체계 구축

- 개발과 공공시설 용량간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밀도와 시기를 조정·제한하는 성장관리시스템(urban growth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고, 광역적 수질관리 및 사고 등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광역환경 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정읍 광역매립장, 농어촌 종합폐기물 매립장건설, 전주 재활용품 처리시설 기반구축, 권역별(전주권, 북부권, 서남권, 동부권) 광역소각장 건설 등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시설별 기능 분리를 통한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의 재활용을 제고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을 유도한다. 구체적 실천사업으로 시·군간 광역화사업, 민원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진기술 도입,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안정적인 처리시설, 민간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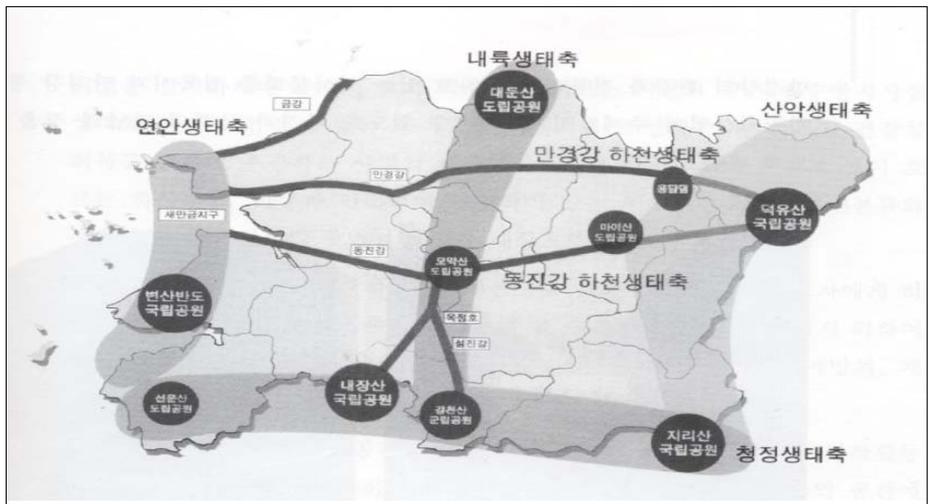
-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확대 및 대기오염도상시 측정분석용 대기오염자동측정망과 환경오염자동감시망을 설치하고 운영·관리함으로써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한다.
- 새만금 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순차개발한다’는 정부방침을 수용하여 새만금 상류 유역 및 새만금 담수호의 적극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수질보전 목표를 달성한다. 이의 실현방안으로 환경기초시설 및 고도처리시설과 하수관거시설의 확충,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강살리기운동 전개, 매월 정기적인 수질측정과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 새만금 상류유역 6개 시·군에 필요한 29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향후 20년간 운영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 책임과 의무 등을 일원화한다. 아울러 축산 폐수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고 적정처리를 위해 개별농가 지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축산분뇨 퇴비·액비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내 시·군 전지역 하수 종말처리장을 완료하여 문화수준에 걸 맞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오수의 하천유입을 방지한다.
- 해상오염 방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어장정화선 운영 등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연안역의 종합정비 및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토양 측정망확충,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적정관리, 비지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실태조사, 토양보전대책 지역의 지정·관리, 폐금속광산 복원사업의 추진을 통해 토양오염을 방지한다.

2. 수자원의 안전·안정성 확보

- 용담댐, 섬진댐, 부안댐, 동화댐 등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상수원수를 안전하게 확보하여 깨끗한 물, 맛있는 물의 확보를 도모한다.

3.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와 연계한 환경보전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 생물의 서식과 이동, 생태계 보전과 생물의 다양성을 위해 덕유산, 지리산, 내장산을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가를 위한 핵으로 삼아 주위의 농지와 하천, 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모악산 생태숲 조성사업, 국립공원보전, 훼손지 복원, 소생태계(biotop)조성, 공원녹지축 확대, 생태우수마을관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 등을 시행한다.
- 인간과 생물이 공존·공생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나무심기, 담장없애기 등을 통한 전주 그린시티조성, 도시 및 녹지테마공원 조성(익산, 진안, 임실), 녹색도시가꾸기사업 등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도시의 자연도를 높이는 도시별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 하천과 도시·농촌의 소하천을 치수·이수 목적과 조화되는 수준에서 동진강, 섬진강 생태하천가꾸기로 어류의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연성을 높이고, 하천개수사업·하천정비·하도준설·4대강 맑은물 되찾기사업 등을 통해 직강화·시멘트화 된 기존의 하천을 자연형하천(eco-river)으로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자정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그림 3-9>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 수종갱신, 임도, 가로수식재 등의 녹화진흥사업과 소하천, 수로, 농로 및 수로주변에 관목림 및 덩불 유지, 동물의 이동통로 및 은신처와 서식처를 제공하며, 환경 친화도가 높은 농어촌마을에 대하여 환경보전우수마을로 선정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농어촌이 자발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생태계내에서 해양 및 해안생태계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만금 해양 생태공원 개발,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4. 방사선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생산의 동북아 중심지로 육성

- 미래 에너지분야 가운데 방사선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국가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전북의 전략산업으로써 관련 사업의 실행과상용화를 통해 집적화 된 국내 생산거점 및 수출 거점으로 육성한다.
- 친환경 에너지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풍부한 풍력을 활용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새만금지구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그림 3-10> 풍력발전단지 외국사례(네덜란드)

- 전북 최초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부안군 에너지 자생 주택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전북도내 공공(교육)기관의 태양에너지 활용과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의 보급·지원으로 민간보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 미래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경제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지형적으로 풍력 및 태양광 등 천혜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정부, 기업체, 연구기관, 학교 등이 연계된 실증 및 실용화 연구를 심화시킴으로써 미래 에너지산업의 수출전진 기지가 되도록 한다.

5. 재해·재난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 풍수해, 한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수해·설해 등 재해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치산·치수의 강화 등 재해에 강한 지역개발을 추진한다.
-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의 생명선(life line)에 대해서는 방재향상을 도모하며, 통신망에 의한 구호체제 등 재해예방과 감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감재 대책을 강구하며, 생활권 형성에 적절한 재해예방을 위한 소방서신축 등 시설을 확충한다.
- 각종 생명 및 재산 손실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예방과 안전한 전북만들기를 위해 도내 각 시·군에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 등을 추진한다.

제6절 생활복지기반의 선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전북 지역의 자연과 기능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도시 이미지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주거·문화·의료복지·교육·체육·관광휴양시설 등의 구축 및 조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매력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으로 자족형 도시형성이 가능토록 유도한다.

생활·복지기반의 선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은 ① 인구정착 및 유인을 위한 교육 및 주거환경개선 ② 농·산·어촌의 정주기반 확충과 도농교류 촉진 ③ 참여형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④ 의료서비스 계층화 및 의료시설 확충으로 설정하고 주거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생활복지기반을 조성한다.

1. 인구정착 및 유인을 위한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 전주, 군산지역에 외국어교육타운을 조성하여 외국어 교육 국제화거점 도시로 추진하고, 무주~진안~임실~순창~남원지역을 친환경 및 국악, 태권도, 애견 등이 어우러지는 청소년 교육문화 중추 도시로 육성한다. 장수는 마사교육의 특성화를 통해 승마 및 기수 양성교육도시로 집중 지원하며, 정읍은 에너지 교육 중심도시, 익산·김제는 농업생명 교육도시, 부안~고창은 해양문화교육중심도시로 육성하여 특성화한다.
- 기능이 상실된 폐교를 자원화하고 전북도내 초등학교 교육의 특성화를 위해 역사문화 및 과학, 의료 교육(익산, 완주, 전주, 정읍), 자연체험 및 스포츠 교육(무주, 진안, 장수), 전통예술 및 승마 교육(남원, 임실, 장수), 해양문화 및 과학 창의성, 농촌 교육(군산, 부안, 김제, 고창) 등으로 특색있는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인구 정착 및 교육기반을 실현한다.
- 지연산업의 특성화와 인력역량의 강화를 위한 대학교육기관간 협력지원시스템의 구축차원의 협의회를 발족하고, 공간적 통합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계획·집행한다. 또한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생애 경력관리 등의 안정적인 인력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 전북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계약학과 제도의 정착을 통한 맞춤형 교육 확대, 패밀리

닥터(family doctor)의 산학협력 전담교수제를 도입하여 산학협력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2. 농·산·어촌의 정주기반 확충

- 농·산·어촌 마을의 자연과 농촌자원, 산림, 해양, 경관 등을 주제로 농업 역사문화박물관(김제, 고창), 해양자원박물관(부안, 군산), 산림 및 스포츠 박물관(무주), 말박물관(장수), 전통예술 및 영화영상박물관(남원, 전주, 완주), 가축 및 동물박물관(정읍, 임실), 한방자원박물관(진안, 익산), 농촌 체험 및 성문화박물관(순창) 등을 건립하여 농촌관광휴양·농촌체험·복합 산업공간이 조화되는 전원주거의 정주기반을 조성한다.
- 친환경 농산물의 도·농 교류 촉진을 활성화하여 도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상생관계 형성 및 판로확대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동부권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장수~진안~무주~남원~순창~임실)와 중·서부권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익산~전주·완주~김제~군산~고창~부안)를 조성한다.
또한 농업유통연구지원단을 설립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포장 디자인 연구 및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한다.
- 농·산·어촌 지역의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지역의 지속적인 생활환경의 개선과 소득원 개발,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농업 특화발전계획지원, 특산단지육성, 시·군별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지원, 특·용작물재배단지조성, 유가공 산업 종합육성 사업을 실현한다.

3. 참여형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 전북의 청정자연환경과 특화된 의료기반 및 문화자원을 실버부문과 접목

하여 전국에서 매우 높은 고령화율에 대비한다. 이를 위해 한방의료 연계 전원실버도시(김제, 익산, 전주, 완주), 친환경 및 레저 실버도시(무주, 진안, 장수), 전통예술 실버도시(남원, 임실, 순창), 해양문화레저실버도시(군산, 부안, 고창) 등을 조성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 장수고을조성 및 실버체전 등 고품질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일거리마련 센터 확충,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실종예방사업, 참여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노인의 재취업 촉진을 통해 노인복지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 노인, 장애인, 여성 관련 종합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개선과 함께 국립재활 연구소, 국립노화연구소 등의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선천·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예방센터 설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응급환자이송을 위한 응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취약여성·아동 보호 및 모자보건사업을 확충하고 영재아동개발센터를 설립 하여 영재를 육성한다. 또한 예술치료심리센터, 인터넷중독예방센터를 설치 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유도하고, 시·군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여성의 사회진출 및 참여를 확대한다.

4. 의료서비스 계층화 및 의료시설 확충

- 전북 인접권인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건설과 환황해권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국내자본과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세계적인 환 황해권 중심 병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여 보건의료의 선진지로 구축한다.
-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시설 차원에서는 보건기관 신·증축 및 개· 보수, 의료장비의 현대화, 보건의료전산망 구축, 인적자원 및 사회문화적 환경, 생산기반시설 등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인 전통한방을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며, 시스템 차원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플렉스타임제를 도입한다.

-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에 따른 도서·오지·벽지 등 지역적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보건기관을 신설 배치하고 기존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충한다.
- 전북 지역 및 인근 주변 지역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질병의 예방 및 처방을 담당하는 질병관리센터의 설치를 통해 안전한 질병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증가하는 암환자 치료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북 암센터를 설립하고, 중기적으로 도내 시·군별 암센터 지부 설치 및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암정복을 위한 연구와 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암환자 및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하며,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사업 운영, 암예방 교육홍보 사업추진, 소아백혈병 등 의료비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암 환자 증가에 따른 체계적 관리 및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7절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행정역량 강화

지방재정의 확충은 낙후된 지역, 그동안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이 체감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자 지방 도시들이 바라는 사항이다. 따라서 전북의 경우와 같이 후발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과감한 배려와 차등지원이 있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 재분배와 제도개선을 위한 자율권보장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지방분권의 추진도 지속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확충속에 지역사회 핵심 주체간의 거버넌스 강화는 지역 경쟁력 확보와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에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① 지방재정 확충과 신뢰받는 행정시스템 구축 ② 지역주체간 연계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내생적 역량강화로 설정하여 추진한다.

1. 지방재정 확충과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 구축

-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어 낙후된 전북지역의 건전한 재정력 확충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전북의 지방재정의 확충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책임감 제고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투용자 심사요건의 강화, 세외수입 확충제도, 예산평가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자율권 보장 및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효율적 지역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 재정수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를 통해 세수증대를 도모한다.
-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권의 지속적 추진과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행정관리를 추진하고, 깨끗하고 공개된 인사승진관리제도의 정착 및 인사위원회의 정례화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안정된 생활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 주체간 연계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내생적 역량강화

- 참여형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핵심적 주체들인 지자체·NGO·대학·기업·언론 등의 정보 창출·교류·확산 등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지역사회 주체간 거버넌스 강화 및 지식기반구축 그리고 지방연구원의 기능강화 및 지원확대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고 궁극적으로 자립형 지방화가 달성되도록 추진한다.
-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확충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의 내생적 역량강화와 도민운동의 정착, NGO 참여기회의 확대 및 지원을 추진한다. 동시에 지역의 인재육성과 지역사회의 특성화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내생적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간 상호 이해와 사업 연계성 확대 등 지역간 교류 협력사업을 강화한다.

- 현안사업과 국책사업, 노사문제 등에 대해 주민과 정부간의 갈등 관계로 인하여 불신이 형성되고 행정낭비를 가져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갈등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분쟁없는 환경속에 지역발전을 추구한다.

제8절 지역간 공생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연계방안

지역간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 및 연계는 공생의 모체인 전북과 타 광역자치단체, 전북권내 기초자치단체간 상생을 위한 사업발굴과 협력방안의 의미를 갖는다. 이 가운데 전북은 특히 광역자치단체간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과 광역자치단체간 공동추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계방안에 중점을 둔다. 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전북과 전북의 비 인접권인 강원도와의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우선권문제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전북과 인접권인 충남 및 전남, 경남, 대구 등과의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지역간 공생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연계방안으로 ① 동계올림픽 개최 및 동계스포츠 기반조성 ② 광역지자체간 공동 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으로 설정한다.

1. 동계올림픽 개최 및 동계스포츠기반 조성

-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유치는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동계스포츠 개최 잠재력을 토대로 전북과 강원도가 합의하고 KOC가 결정한 동계올림픽 유치 전북 우선권에 대한 동의서를 준수하고, 사계절 청정 관광지 무주와 전

통과 문화가 깃든 예향 전주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제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전북에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IOC 기준에 합당한 스키경기시설의 확충과 국제 빙상경기, 월드컵 등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 스포츠 전문시설을 확충토록 한다. 아울러 무주·전주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를 제고하는 지역마케팅 방안을 구축하고, 국제스포츠 행사유치를 위한 스포츠 외교의 강화 및 지역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 지속적 동계스포츠 기반 조성을 위해 동계스포츠 학교를 설립하여 다방면의 동계스포츠 전문가를 육성·배출토록 한다. 또한 전북도내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에 동계스포츠 관련 팀의 창설을 지원하여 국내·외에서 동계스포츠 메카로서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학교체육 교육 시스템에 동계스포츠 종목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실천 및 지원을 위해 구심체가 될 전라북도체육진흥공단을 설치·운영한다.

2. 광역지자체간 공동 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

- 공동사업은 지역개발 체계상 행정구역 단위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기능적 연계 강화와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협력·제휴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개별 거점도시만의 대응으로는 광역시설내지 광역지자체간 공동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인접도시의 보완과 협력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한다.
- 서해안지역은 향후 인적·물적 교류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배후지로서 역할증대가 기대되는 지역임으로 서해안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군산 및 장항, 새만금지역의 생산교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관광자원의 연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산국제해양관광

지 조성, 서해안 종합관광벨트조성, 사계절 해양관광 특구지정 등을 통해 거점관광지 정비와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과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시설 등을 조성하여, 인접 지역의 자원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초점을 맞추어 정비·개발한다.

- 현재 계획수립중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의 선도사업(leading project)을 중심으로 공동 추진하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완공됨과 동시에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요계획을 광역자치단체간 공동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 아울러 전북·충남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백제시대이후 같은 문화올타리 속에서 오랜 공동체적 연원을 가졌으면서도 서로 협력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터에 전북의 인접 광역지자체인 충남과 공동발전방안의 토의를 위해 ‘전북·충남 교류협력회의’ 출범을 통해 탄력을 받고 있다.
- 동서화합과 통합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전북도가 수립한 5개 도 11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지·덕 문화관광권 개발, 문화관광부에 의해 수립중인 3개 도 7개 시·군이 참여하는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동서횡단철도 등은 지역간 연대와 공간적 통합성 제고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지·덕 문화관광권은 지역간 연계를 통한 관광개발은 물론 동서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성격을 가지며,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동서간 연계는 물론 2014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사업이다. 또한 동서횡단 철도는 국토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정시성이 높은 안정적 교통수단인 철도로 연계함으로써 국토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동서간 또 하나의 길을 여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토 중·남북 내륙지역의 물류수송망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발족

된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무주~영동간 내륙산악철도를 건설한다.

- 전북의 주요거점으로부터 신행정수도와 연계하는 광역 간선교통망 구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의 통합성 증진 및 유동인구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군장대교 건설 등 인접 시·도간 국도 확·포장사업을 광역지자체 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조기착공 및 사업완료 효과를 기대한다.
- 전북권내 기초 자치단체간 상생을 위한 사업으로 새만금 유역인 동진강과 만경강에 걸쳐있는 도내 6개 시·군의 의회가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의 통합관리에 대해 최근 동의함으로써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 목표달성과 운영비용 절감이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며, 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지원과 운영효율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요구된다.

제 4 장

정책적 건의사항

제Ⅳ장 정책적 건의사항

다음의 내용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총괄부문과 시·도부문 계획에 포함시키고 기정 제4차 국토종합계획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것을 건의한다.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상의 권역설정을 광역행정구역 중심 또는 10대 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성장권역의 구분 필요
 - 과거 수차례에 걸친 국토계획상의 권역이 일치하지 않아 국토정책의 성과에 대한 검증 어려움 해결 필요
 - 특히 전북의 경우 광역시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대 권역으로 설정시 타 지자체의 성장 구심축을 지원, 보조하는 차 하위 지역으로 전략할 우려가 큼
 - 정책 전개와 성과검토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행정구역 중심 내지 기정 국토계획상 광역권 중심으로 권역설정(기존 광역권 전 국토 면적의 52%, 인구의 46%가 해당되어 국토공간 포괄 범위로도 의미가 충분함)
- 정부의 새만금사업 조치계획을 수용하는 일관된 추진 필요
 - 2006년 방조제공사 완공, 전북지역 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가장 유리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단계적 개발을 시행토록 되어 있는 정부 방침에 부합되는 정책 추진
- 일관된 국토정책 기조의 유지하며 추진
 - 전주의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육성 및 영상문화산업수도화의 지속적 추진이 요구됨
- 전국 10대 광역권 개발(광역권별 개발방향, 기정계획 23쪽) 수정
 - “복합산업지대 조성과 영상산업의 육성”을 “복합산업지대 조성과 전통문화중심도시 및 영상문화산업의 육성”으로 수정

- 고속교통 정보망의 구축(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철도망 추진, 기정계획 71쪽)
 - 고속철도 정차역 배후지역간의 연계체계 촉진과 전주·군장광역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단일 생활권화 함으로써 도시총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주~익산~군산~새만금간 순환경전철 노선 건설추진” 추가
-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와 동계스포츠 메카로서의 기반 조성(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및 IOC 기준 기반시설 확충)

별 책(요약본)

- 제 1 절 현황과 여건변화 전망
- 제 2 절 목표 및 추진전략
- 제 3 절 전략별 추진방안
- 제 4 절 정책건의

I. 현황과 여건변화 전망

1. 지역현황

- 전북의 지형은 동서방향으로 산악-평야-해안으로 이어지는 계단식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를 대표하는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어 전체면적의 51%가 표고 100m이하의 평야임
- 국토면적의 8.1%에 해당되는 행정구역 면적비율보다 낮은 4.0%의 인구점유율을 보이는 인구감소지역이며, 경제활동인구층의 인구유출이 매우 심함
- 마한·백제 및 조선조문화 등 찬란한 전통문화예술 자원과 대규모 간척 사업에 의한 풍부한 토지자원과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2. 여건변화 전망

- 신행정수도와 접근성이 양호해져 국토개발과정에서의 경제적 낙후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열악 등을 탈피하는 역할강화 전략이 필요
- 신행정수도 건설, 『5도 2촌』, 고속철도시대 도래 등으로 풍부한 토지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육성을 통해 성장 원동력화 가능성 높음
- 중국과의 협력강화에 따른 환황해권의 지역간 산업분업 심화로 군산 및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와 광활한 토지자원을 제공할 새만금지구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져 신행정수도의 관문으로서의 역할 기대

3. 계획과제의 도출

- 전북이 타 지역수준의 성장과 자생력을 보유하는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현안사업(전주-군장광역권 개발, 새만금지구의 복합적 토지이용, 경제자유구역지정, 동계올림픽 개최, 김제공항 등)을 우선 시행되어야 할 계획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등 지방분산책에 맞추어 저렴한 산업용지의 공급 여건과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토대로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의 육성,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인프라구축, 동서 지역간 통합성 제고를 위한 동서지역간 연결 인프라 등을 구축

II. 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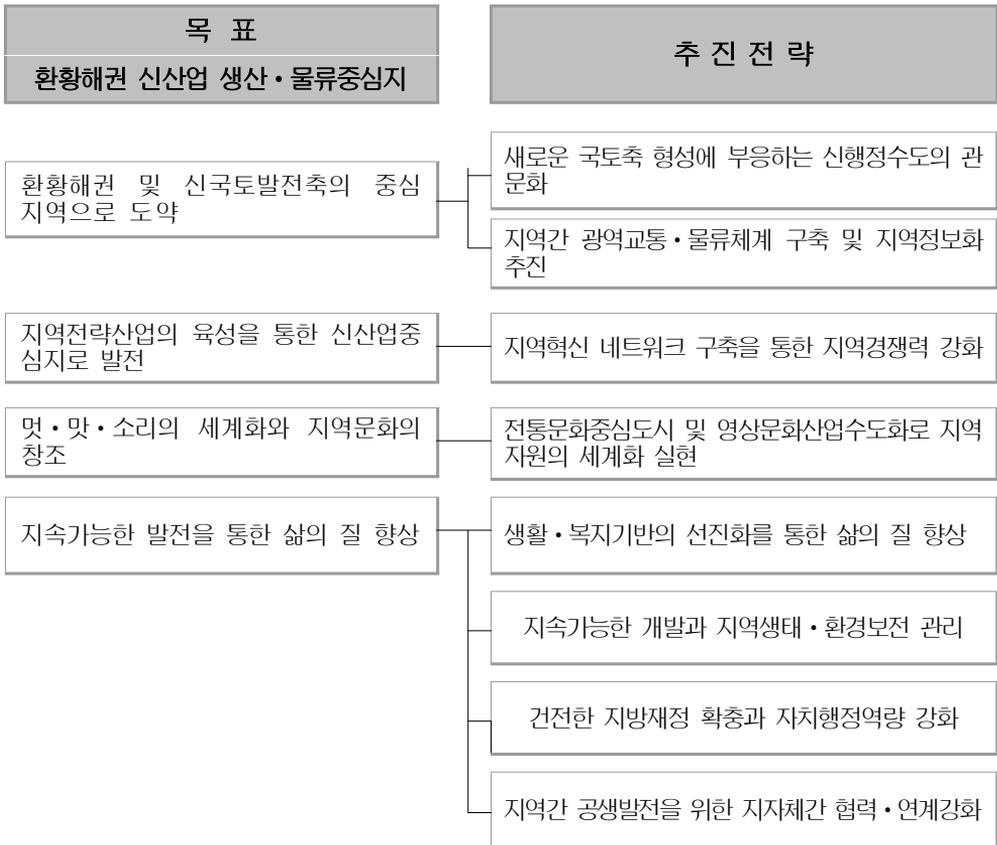
전북의 『**환황해권 신산업 생산·물류중심지**』로의 도약을 달성을 위해

- 환황해권 및 신국토발전축의 중심지역으로 도약
-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신산업중심지로 발전
- 멋·맛·소리의 세계화와 지역문화의 창조
-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 주요 추진전략

전북이 보유한 발전잠재력과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여건변화 전망을 종합한 중점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

- 새로운 국토축 형성에 부응하는 신행정수도의 관문화
- 지역간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지역정보화 추진
-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전통문화중심도시 및 영상문화산업수도화로 지역자원의 세계화 실현
- 생활·복지기반의 선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생태·환경보전관리
-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행정역량 강화
- 지역간 공생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연계강화



<그림>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Ⅲ. 전략별 추진방안

1. 새로운 국토축 형성에 부응하는 신 행정수도의 관 문화

1) ‘전주·군장 광역권’의 환황해권 생산·물류 거점 기지화

- 전주·군장광역권의 전북 핵심권역화와 환황해권 생산·물류 및 동북아 교류의 거점권역으로 육성
- 전주~익산~군산 연담대도시권과 새만금, 정읍, 부안, 완주도시권을 아우르는 군장광역권의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2) ‘신산업 생산중심’의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 군산의 지정학적 여건과 산업 인프라를 고려하여 ‘신산업 생산중심’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1단계(단기)에는 생산중심의 소규모 국제산업도시로 육성, 2단계(장기)에는 국제경제자유도시로 건설
- 3) 새만금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내부개발 추진
- 전주·군장광역권과 연계된 환황해권의 신산업 거점으로 구축
 - 2006년 방조제공사 완공, 국가와 지역에 이익이 되는 내부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단계적 내부 개발의 추진과 일부 사업완료
 -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토지수요에 원활히 대처 가능하도록 다수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문을 종합적으로 담아 의제 처리할 수 있는 ‘새만금종합개발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
- 4) 군장신항 확충과 새만금신항 개발 및 김제공항 건설 추진
- 군장신항은 항만기능과 복합적인 물류 및 국제교류기능을 담당토록 확충하여 중국 교역거점이자 동북아 교역 허브항으로 개발
 -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과 군산 경제자유구역(2단계) 조성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와 틈새 물류집하기능 담당, 우리나라 항만 배후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최적 조건을 보유한 새만금신항 건설
 - 수도권에서 3시간대 위치한 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 전북에 향후 증대될 항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국내항공노선 위주의 김제공항 건설, 장기적으로 국제 항공노선을 취항할 수 있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반 구축
- 5) 혁신도시 육성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 전북의 지역산업을 고도화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혁신도시’ 우선 육성
 - 농업분야가 특화된 충남~전남지역간 접이지대인 전북에 농업기능의 미래형 혁신도시 조성
 - 전략산업 관련 공공기관 클러스터(전력산업기능, 에너지관리기능, 문화학술

기능, 주택산업기능, 건설기능 등)유치

6) 환황해권과 연계한 동부산악권의 휴양·레저 거점화

-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에 따라 새롭게 창출될 관광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테마형 특화 관광지역을 동부산악권(무주·진안·장수·남원·순창)에 조성
- 생태·휴양 관광자원, 레포츠 체험관광자원, 전통문화체험 관광자원을 집중 육성
- 지역 고유의 특성을 담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외국인문화특구, 보석관광특구, 한방산업특구, 레포츠휴양특구, 승마레저특구, 스파밸리스포츠특구, 장수계발특구, 해양체험관광특구 등) 지정·육성

2. 지역간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지역정보화 추진

1) 신행정수도 및 지역간 연계강화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 신행정수도와 새만금지구, 신행정수와 전북도내 주요 도시간을 연계하는 격자형의 3×3(남북 3축, 동서 3축) 고속간선망 구축
- 남북축은 김제공항~익산~논산JCT~천안·논산간 고속도로~신행정수도간 고속도로와 새만금~군산(군장대교)~군장JCT~공주·서천간고속도로~신행정수도간 고속화도로 건설, 전주~논산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 동서축은 새만금~서해안고속도로-김제공항(지방도 716호 확장)~전주간 고속도로, 군산~익산~호남고속도로(익산JCT)~장수간 고속도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및 현재 추진중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계획 기간내 완공
-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의 '천안'조기확정, 호남선 고속열차 운행효과 극대화를 위해 익산~순천간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조기완료
- 군장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대량화물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익산(오산)~군산(대야)간 군산선 복선전철화 추진, 내륙과의 철도연결을 위한 대야~군장국가산업단지간 인입철도를 건설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또한 동서 화합을 꾀하는 축이자 서해안의 발전을 내륙으로 전달하는 축으로서 새만금~

군산~익산~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하고, 중·남북 내륙지역의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무주~영동간을 연계한 내륙산악철도를 건설

- 주요 도시지역간 원활한 대중교통수송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장기적으로 전주시 노면경전철 건설, 고속철도 정차역 배후지역간의 연계체계 촉진과 전주·군장 광역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단일생활권화 함으로써 도시총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주~익산~군산~새만금간 복선전철망을 구축
- 일반국도 4차선화와 국가간선 도로교통시설과 연계하여 생활권내 통행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간선 도로망 확충
-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증가될 관광·레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리산경 비행장 건설 및 전북의 서부해양관광권~중부전통문화권~동부산악생태 관광권을 연결하는 전북순환고속화도로(belt way) 구축

2)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 및 격년제 실시

- 군산신항과 새만금지역을 동북아의 물류전진기지로 구축 목적의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 및 격년제로 정례화 추진

3) 국가기간 물류거점 및 권역별 거점유통단지 조성

- 익산 근교에 물류관리정보시스템과 트럭터미널을 갖춘 전북거점 종합물류 단지 조성
- 새만금 내부 또는 새만금 인접 군산지역에 군산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지구 연계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 건설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4대 권역(전주,군산,정읍,남원) 물류단지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주변에 장수유통단지와 김제공항주변에 김제유통 단지 조성

4) 산업·기술·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

-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첨단정보통신 기반 구축,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단지의 건설
- 첨단디지털정보센터(HiDC) 구축 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및 지역

특화 정보화 추진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공자재형(Ubiquitous) 네트워크 기반구축

- 상업적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e-비즈니스지원센터 설립
- 지역특화산업의 관리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첨단정보통신 테크노파크 조성
- 종합물류정보시스템 및 마을별 네트워크 구축사업, 영농, 축산, 수산정보망 구축을 통한 첨단영농관리시스템 운영

3.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1)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지역발전모형 구축

- 전략산업(자동차부품·기계산업과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신·재생 에너지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과 지연산업(귀금속·보석산업, 니트 산업, 옷칠산업, 장류산업, 유가공산업, 복분자산업, 젓갈산업, 한우산업, 파프리카산업, 허브산업) 육성 및 산업생산체제의 고도화를 위한 혁신주체의 역할강화
- 지역혁신 주체들간 상호 네트워크 구축의 제도화
- 전략산업중심의 산업집적지와 지연산업 중심의 산업집적지 구축
- 전략산업과 중소기업, 공공부문 지원을 위한 기업서비스 분야 지원 및 기업 지원체계 구축

2) 전략산업과 지역 고유의 전통산업 활성화

-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산기반 확충 및 고도화 기반구축, 산업입지 및 생산인프라 구축을 통한 집적화 단지조성, 지원센터건립, 생산 연관 산업 집적화, 산업융재 종합유통단지 조성, 중견 부품기업체 유치 및 서해안 자동차(부품) 생산 거점화 추진
- 생물산업 국내 중심지 조성을 위해 전북 고유의 3대산업(식품, 생물, 한방) 10대시책의 중점추진

- 방사선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첨단 방사선의료영상기기산업, 양성자가속기 활용 첨단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행과 상용화로 국내 생산 및 수출거점화)을 통해 장기적으로 동북아 방사선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지화
-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관련 중점사업(맞춤형 체험관광상품개발,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육성, 체험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전통문화예술진흥 사업, 통합네트워크구축사업 및 연구지원사업,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의 추진
- 차세대 신성장 신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기술산업과 관련하여 전주에 유치된 나노기술센터를 기반으로 국가나노기술의 허브로 육성
- 지연산업별 체계적 육성을 통해 향후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3) 전주~익산~군산~김제~정읍을 잇는 T자형 혁신클러스터 조성

- 전주~익산~군산을 주축으로 하고 익산~김제~정읍을 보조축으로 하는 T자형 전략 산업벨트 구축(전주기계테크노권~익산테크노권~군산자동차테크노권~정읍·김제테크노권)하고 장기적으로 새만금지구 군산 행정구역 내에 새만금테크노권 구축
- 전주~봉동~삼례를 주 집적지로 하고 군산, 정읍을 보조 집적지로 하는 연구개발 집적지 구축
- 연구개발 집적지와 산업 집적지 주변에 교육, 문화, 생활 인프라 구축과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소가 연계·협력하는 지역 토착형 클러스터 모델화 추진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의 원스톱 서비스체제구축을 기업지원 전략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센터(RDC), 디자인혁신센터(DIC)를 집적화 단지내 육성
- 급변하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 동향에 부응하는 자동차일렉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인포트로닉스산업 및 기계산업 육성

4) 안전한 식품공급체계의 구축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 전략산업과 지연산업간의 유기적 연계와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클러스터와 농공단지 조성
- 농도로서 농업의 건전한 발전과 적정규모의 농지확보 및 우량농지의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농지관리방안 모색
- 전국 쌀 생산의 15%를 점유하고 전통적인 쌀 생산문화 보유지역으로서의 문화계승을 위한 “쌀 세계 박람회” 개최
- 첨단과학기술과 경영 마인드가 접목된 친환경적 식품공급체계 및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농원, 농촌휴양지, 첨단농산물산업단지, 지역 특화식품가공단지 등의 조성을 통해 수출지향의 특화 농업기반 구축
- 전북내 3개 권역이 상호 조화된 혁신체계 구축(전주·정읍·군산권의 생물 화학산업, 익산·전주·진안·장수·무주권의 한방산업 및 생물자원산업, 군산·김제·부안·고창·정읍·순창·임실의 바이오 식품산업)
- 생물산업 국내 중심지 조성을 위해 대사물질 연구 및 교육시스템, 바이오제품 마케팅 인프라, 과학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바이오파크(생명공학연구단지 : 전주·군산·임실·고창)조성
- 한의약자원 생산기반 및 한방의료 실버산업단지, 약초 및 식품 원료 청정 재배단지 조성과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화와 유통 시스템 구축

4. 전통문화중심도시 및 영상문화산업수도화로 지역자원의 세계화 실현

1) 영상문화산업수도화를 통한 영상문화산업 메카로 도약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전주를 영상문화산업수도로 발전방향을 정한 바 있으나 수도화정책과 관련된 특화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명실상부한 영상문화산업 수도화 정책 추진
- 세계적 문화유산인 판소리의 지속적 육성과 백제문화와 지식묘, 조선조문화, 전라감영 등의 역사문화를 전승·정비·복원·조성하여 세계적 문화·관광 산업화
- 시대별·테마별로 촬영이 가능한 집적화된 역사·전통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영화촬영 벨트화(부안·남원·임실·장수 등)를 위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 전북의 정체성 관련 행사(지역고유 축제, 유·무형의 문화자원 이용행사,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 등)의 지원 및 세계적인 관광산업으로 승화

2) 『5도 2촌』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

- 전통문화 보존 전승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전통문화보존 전승 사업·문화예술 콘텐츠 사업·통합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문화산업 기반 조성
- 권역별(역사문화관광권, 산악휴양관광권, 해양문화관광권)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 10대 관광거점 새만금지구의 적극적 개발과 고군산군도와 연계하여 복합 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함으로써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화 추진
-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과 연계한 동부권 관광벨트화 사업을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 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 관광상품 디자인, 관광프로그램 개발, 효율적인 홍보체계 구축 등에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 설립

3) 전주권의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 및 육성

- 정보화, 문화콘텐츠화 등 지식산업 정책이 급부상하고 있는 변화속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복원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천년의 전통생활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한국의 전통문화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 전주권을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하여 전통생활문화 공간조성, 전통문화 인력양성, 전통문화산업 육성, 전통문화예술진흥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한 전통문화를 보호 육성
- 전주한옥마을조성, 구도심 문화공간조성, 후백제테마파크 조성, 전통문화 학습 및 교육원 건립, 공예공방촌 조성과 한지 세계화사업,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전수관과 서예박물관 건립 등 전통문화 육성 관련 사업을 추진

5.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생태·환경보전 관리

1)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 관리체계 구축

- 개발밀도와 시기를 조정·제한하는 성장관리시스템 도입 및 광역환경관리 센터의 설치·운영
-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진기술의 안정적인 친환경적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확대 및 대기오염 자동측정망과 환경오염자동감시망 설치·운영·관리
- 새만금 상류유역 및 새만금 담수호의 적극적인 수질개선사업 추진으로 수질 보전 목표 달성
- 문화수준에 걸 맞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통해 오수의 하천유입 방지하고 도내 시·군 전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완료
- 해상오염 방지를 위한 어장정화사업 추진과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측정망 확충, 오염유발시설 적정관리, 폐금속광산 복원사업 추진

2) 수자원의 안전·안정성 확보

- 용담댐, 섬진댐, 부안댐, 동화댐 등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로 안전하고 맛있는 물 확보
-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주권, 섬진댐 주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과 광역수수사업, 농어촌지방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 상수도 미 공급지역 주민을 위한 간이상수도시설 및 소규모급수시설 확충사업 지속
- 노후관 개량 등 수돗물의 유통과정 개선 및 질 저하 방지사업과 중수도 및 빗물이용 등 효율적 물관리사업 및 시스템 도입
- 합리적 물소비패턴 정착과 절수운동 생활화를 위한 물관리 목표제, 절수기 설치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사업 시행
- 공업용수 개발사업의 추진과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업용수개발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

3)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와 연계한 환경보전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 생물의 서식과 이동,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을 위해 생태네트워크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인간과 생물이 공존·공생하는 도시조성을 위해 나무심기, 담장없애기 등을 통한 전주 그린시티조성, 도시 및 녹지테마공원 조성(익산, 진안, 임실), 녹색도시 가꾸기사업 통해 도시별 소규모 네트워크화
- 하천 및 도시·농촌의 소하천의 치수·이수 목적에 조화되는 동진강, 섬진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 하천개수·하천정비·하도준설·맑은 물 되 찾기 사업을 통해 기존 하천의 자연형하천(eco-river)화
- 녹화진흥사업과 관목림 및 덩불 유지, 동물의 이동통로 및 은신처와 서식처 제공 사업시행, 환경 친화도가 높은 농어촌마을의 환경보전우수마을 선정과 인센티브 부여
- 새만금 해양생태공원 개발 및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육성 사업 추진

4) 방사선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생산의 동북아 중심지로 육성

- 전북 전략산업인 방사선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행 및 상용화를 통해 집적화 된 국내 생산거점 및 수출 거점화
- 친환경 에너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풍력을 활용한 새만금지구 풍력 발전 단지 조성
- 에너지 활용 현실화를 위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부안군 시범 에너지 자생 주택단지 조성, 전북도내 공공(교육)기관의 태양에너지 활용 및 사회복지시설의 태양열 급탕시설의 민간부문 보급·지원 활성화 유도
- 미래 신·재생에너지 경제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및 실증·실용화 연구의 심화

5) 재해·재난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풍수해, 한해 등에 대비하는 재해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 생명선(life line)에 대한 방재향상 도모 및 종합적인 감재 대책을 강구하고 생활권 형성에 적절한 재해예방을 위한 소방서신축

6. 생활·복지기반의 선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1) 인구정착 및 유인을 위한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 외국어 교육 국제화거점도시 추진을 위한 외국어교육타운 조성과 함께 청소년 교육문화·승마 및 기수 양성교육·에너지 교육·농업생명 교육·해양문화교육 중심도시를 육성하여 특성화

2) 농·산·어촌의 정주기반 확충

- 농·산·어촌 마을의 자연과 농촌자원, 산림, 경관을 주제로 한 주제박물관 조성
- 친환경 농산물의 도·농 교류 촉진 활성화와 판로확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이의 실현방안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동부권, 중·서부권) 건립 및 농업유통지원단 설립 추진
- 농·산·어촌 지역의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 수립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원 개발, 소득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농촌환경 기틀 마련

3) 참여형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 청정자연환경과 특화된 의료기반 및 문화자원을 실버부문과 접목한 한방의료연계 전원실버도시, 친환경 레저실버도시, 전통예술실버도시, 해양문화 레저실버도시 등을 조성
-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 장수고을조성 및 실버체전 등 고품질 노인복지 정책 추진
- 노인, 장애인, 여성 관련 종합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개선과 함께 국립재활연구소, 국립노화연구소, 장애 발생의 예방을 위한 장애예방센터의 설립 추진
- 취약여성·아동 보호 및 모자보건사업, 영재아동개발센터 설립, 예술치료 심리센터 및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설립,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사회적 약자 보호

4) 의료서비스 계층화 및 의료시설 확충

- 행정수도와 환황해권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세계적인 환황해권 중심 병원의 설립을 통해 보건의료 선진지화
-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보건기관 신·증축 및 개·보수하고, 의료장비를 현대화하며, 인적자원 및 사회문화적 환경, 생산기반시설 등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인 전통한방을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도서·오지·벽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건기관 신설 배치 및 기존 시설과 장비 확충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
- 질병의 예방 및 처방을 담당하는 질병관리센터 설치로 안전한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 전북 암센터 건립과 시·군별 암센터 지부 설치 및 의료기관 지정

7.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행정역량 강화

1) 지방재정 확충과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 구축

- 전북지역의 건전한 재정력 확충과 지역사회의 책임감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요건의 강화, 세외수입 확충제도, 예산평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제도 도입
- 재정수입의 안정화 도모 및 납세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지방세 과표 현실화를 통한 세수증대 도모

2) 지역사회 주체간 연계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내생적 역량강화

- 지자체·NGO·대학·기업·언론 등 지역사회 주체간 거버넌스 강화 및 지식기반구축과 자립형 지방화 달성
- 지역의 인재육성과 지역사회 특성화 추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간 상호이해와 사업연계성 확대 등의 지역간 교류 협력사업 강화

- 현안사업과 국책사업, 노사문제 등에 대한 주민과 정부간의 갈등조정시스템 구축과 조정위원회 활성화

8. 지역간 공생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연계강화

1) 동계올림픽 개최 및 동계스포츠기반 조성

- 전북과 강원도가 합의하고 KOC가 결정한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유치 우선권에 대한 공생발전 차원의 접근 및 해결
-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IOC 기준에 합당한 스키경기시설 및 국제대회를 유치 가능한 국제 스포츠전문시설 확충
- 동계스포츠 기반 조성의 지속화를 위한 동계스포츠 학교 설립, 교육기관 및 실업팀 창단지원을 통해 동계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며, 스포츠 구심체가 될 전라북도체육진흥공단의 설치 및 운영

2) 광역지자체간 공동 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

- 기존의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과 현재 계획수립중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공동 추진하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완공이후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자치단체간 공동사업으로 선정 추진
- 전북의 인접 광역지자체인 충남과의 '전북·충남 교류협력회의' 출범을 통해 전북·충남간 공동발전방안의 지속적 모색을 통해 광역지자체간 공생발전 기틀마련(지역의 통합성 증진 및 유동인구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군장대교 건설, 인접 시·도간 국도 확·포장 사업을 광역지자체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조기착공 및 사업완료 효과 기대)
- 전북도가 수립한 5개 도 11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지·덕 문화관광권 개발, 문화관광부에 의해 수립중인 3개 도 7개 시·군이 참여하는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동서횡단철도, 내륙산악철도(남원~영동간)등은 지역간 연대와 공간적 통합성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되고 실현될 때 공동협력 사업의

의미 제고

- 전북권내 기초 자치단체간 상생을 위한 사업으로 새만금 유역인 동진강과 만경강 인접 6개 시·군의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의 통합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과 운영효율화를 위한 지원 필요

IV. 정책건의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상의 권역설정을 광역행정구역 중심 또는 10대 광역권을 중심으로 성장권역을 구분해야 함
 - 과거 수차례에 걸친 국토계획상의 권역이 일치하지 않아 국토정책의 성과에 대한 검증 어려움 해결 필요
 - 특히 전북의 경우 광역시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대 권역으로 설정시 타 지자체의 성장 구심축을 지원, 보조하는 차 하위 지역으로 전략할 우려가 큼
 - 정책 전개와 성과검토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행정구역 중심 내지 기정 국토계획상 광역권 중심으로 권역설정(기존 광역권 전 국토 면적의 52%, 인구의 46%가 해당되어 국토공간 포괄 범위로도 의미가 충분함)
2. 정부의 새만금사업 조치계획을 수용하는 일관된 추진 필요(2006년 방조제 공사 완공, 전북지역 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가장 유리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단계적 개발추진)
3. 일관된 국토정책 기조 유지 필요
 - 전주의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육성 및 영상문화산업수도화의 지속적 추진
4. 전국 10대 광역권 개발(광역권별 개발방향, 기정계획 23쪽) 수정
 - “복합산업지대 조성과 영상산업의 육성”을 “복합산업지대 조성과 전통문화 중심도시 및 영상산업의 육성”으로 수정

5. 고속교통 정보망의 구축(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철도망 추진, 기정계획 71쪽)
- 고속철도 정차역 배후지역간의 연계체계 추진과 전주·군장광역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단일생활권화 함으로써 도시총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주~익산~군산~새만금~부안~김제연결 순환경전철 노선 건설추진” 추가
6.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와 동계스포츠 메카로서의 기반 조성(무주~대구간 고속도로 및 IOC 기준 기반시설 확충)

전발연 2004-R-0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전라북도 발전방향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4년 9월 30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8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6 KT-B

전화:(063)276-2060 팩스:(063)276-2069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